

연중 제 2 주일

기도서 P. 329 A해

1독 (이 사 49, 3, 5-6절)  
2독 (고린전 1, 1-3절)  
복음 (요한 1, 29-34절)

# 숲정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이수현
주간	조심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강론 □



## 내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권영균 신부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관계였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처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으나 세례를 베풀때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고 '이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알았습니다. 그때 바로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유일한 직분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알고 자기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해'로 정하고 그를 실천해 왔으나 기대한 바와 같이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우리 배가 이웃에게 감화를 줄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교회헌장 제4장 평신도 편에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특히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빛나는 실생활의 증거로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있는 현세의 사람들을 비추어 주고 관리 함으로써 모든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라서 창조주와 구세주에게 찬미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다'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 되려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빛나는 실생활로써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진실한 신앙과 거짓없는 사랑의 생활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산증거를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세상을 붙들어 주시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차가와가는 세상을 다시 뜨겁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각박하고 메말라가는 인정을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질러 뜨겁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세상에 다시 모셔와야만 합니다.

세례자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되어 그분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여 온전히 생활자체가 그분을 닮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감화력있게 해야겠습니다.

1978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크리스찬생활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웃에게 감화를 주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합시다.

(화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 증언(證言)하자

해마다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치뤄진다. 6년이나 3년, 혹은 4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장을 손에 쥐게 된다. 그간 당사자나 부모, 교사들의 애쓴 보람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제 어떤이는 학업을 더욱 계속할 것이고, 어떤이는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물론 사회의 여건때문에 대기상태에 머무는 이도 있다.

학창시절에는 비교적 청순한 마음으로 뜨겁게 불타며 무언가를 배우고자 애쓴 그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졸업식날이면 많은 분들이 그들을 축복해 주며 새로운 생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충고 해준다. 아니 격려해준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같이 조용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여제의 과정을 졸업하고 새로운 오늘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마태오 10, 32-33)

우리는 연수회나 묵상회, 꾸르실료, 교리반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한다. 그러나 막상 어떤 일에 부딪칠 적에 그리스도를 의면하기도 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배운 진리를 선반위에 얹어버리고 부정한 현실과 쉽게 타협 해버리기도 한다.

이제 그를 증언하자. 특별히 가난하고 짓눌려 있는 그리스도를 "나는 안다"고 증언하자.

## 숲정이 산책



# 여러분은 이제 이방인이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형제자매들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978년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염원하는 일치기도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서 43년째가 되는 일치기도 주간은 1936년 불란서의 리옹교구에서 처음 실시되어 급속도로 가톨릭 안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1년부터는 전 그리스도교계에 보급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년 일치에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안에서 하나 되기를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최후 만찬의 석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려하시고 탄원하신대로 “아버지! 이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과같이 이사람들도 우리들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 21)라는 그리스도의 호소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 일치에의 기도주간이 연례 행사처럼 흘러 버릴수 없다는 소신아래 보다 적극적인 일치에의 자세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인 일치에의 자세가 되기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상 만민을 아버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한가족을 이루고 서로 형제같은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한사람(아담)에게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어 온 세상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다 단 하나의 같은 목적으로 불리었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목헌장 24).

그러므로 한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로 뭉쳐 형제적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인간들에게 있어 개개인 개인의 불일치 같은 크리스찬들 간의 불일치, 비크리스찬과의 불일치 등은 원하지 않은 결과 들이라 하겠습니까. 이런 불일치, 불신이 나 개인안에서부터 비롯하여 우리 이웃 사이에서 점차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로 더욱 서로의 의존성이 높아가는 인간들과 날로 더욱 하나로 뭉쳐지며 좁아지는 현대세계에 있어서 그 형제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만이 일치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불신앙, 불일치, 불신종중들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현대의 교회가,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에 충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즉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형제적 사랑의 실천을 잘하지 못하는—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의 반성을 느끼는데서부터 우선 일치에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에페 2, 18-19)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한 형제됨을 계속 고백하며 실천하는 크리스찬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자처하려 하는 모든 불확실한 신앙생활에서부터 먼저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성도(시민, 가족)가 되는것이 일치에를 염원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치에의 내적인 적극적 자세를 바탕으로하여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다른 크리스찬들과의 만남이 이뤄져야 하는때 첫째로 일치 운동의 표준은 복음이라는 점입니다.

일치운동이란 타교회와 기술적으로 연합하자는 운동이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본질적 유일성으로 복귀하자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교회나 교단들의 적극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표준은 그 교회나 교단의 주장및 실천이 얼마나 우리의 (가톨릭의) 가르침과 실천에 가까운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에 가까운가에 있느냐 이겠습니다.

“나그네길에 있는 교회는 교회 전체로서나 인간적이며 현세적인 제도로서나, 언제나 필요한 혁신을 계속하도록 그리스도께 불리었다. 시대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도덕에 있어서나 교회규율에 있어서나 교리의 표현방법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한것이 보존되어 왔다면 혁신되어야 한다.”(일치교령 6항)는 공의회 정신은 바로 복음에 의거한 교회의 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정신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그 여부를 생각한다면 우리만의(가톨릭) 지나친 자기 중심주의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일치운동은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인정함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자,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깊이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일치교령 9항).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대등한 인격으로 인정함입니다.

과거의 우리교회가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은 확고 부동하고 명백하게 정의된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마당에서는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도 주의깊게 듣는 아량이 있어야 하고 몇마디만 듣고 곧장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진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나서 대등하게 나누는 대화는 일반 통행적인 아집과 편견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방인이 아닙니다. 아멘  
(전국 일치위원회)

□설계·감리·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 신원 건축연주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3-1449(야간)

☆고교·대학 진학, 공무원 고시 전문 !!

## 이리경문학원

○이리역앞(서울 신막은행4층) ☎ 5943

□검정 고시반(78년4월,8월대비 대입검정·고입검정)

□고입 종합반 □대입 종합반

□4·5급 공무원반(행정직, 교정직, 농조, 검찰)



## 와룡공소 신축에 즈음해서

### 최 용 범

애써 참으며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룡에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단란한 가족들이 웃음꽃 피우며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보호해줄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알지 못하듯이 큰 본당에 사는 신자들이나 공소가 있는 신자들은 조그마한 공소가 없어 어둔 골방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어려움과 거기에 따르는 서러움을 모를 것입니다.

이러한 서러움을 지니고 어두운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교사업이 시작된지 8년만에, 이젠 영세자 35명과 예비자 20명에 남부끄럽지 않게 커왔으나, 그러던 그리할수록 어려움은 더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공소를 꼭 세워야 할텐데"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할 하는 와룡공소 신자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며 가장 큰전교사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질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소건설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를 본 김제본당 박창신신부님을 비롯해서 사도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인해 드디어 취약지인 와룡공소에도 어두움이 벗겨지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는 망치소리가 들린지 오래됩니다. 그러나 나날이 달라지는 물가고와 건축 자재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부풀기만 했던 와룡공소 신자들의 마음은 또 한번의 삶의 어려움에 부딪쳐, 뼈만 앙상한 공소 건물을 놓고 엄동설한을 앞에 둔 채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시련의 아픔을 맛보고 있습니다.

교우 신자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공동체 정신의 힘을 감히 빌어 공소건물을 어떠한 냇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완성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도움을 청해 봅니다. 내집도 아니며 그 누구의 집을 짓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와룡공소 신자 모두는 여러 교우님들의 조그마한 정성으로 공소가 준공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와룡공소 신자들에게도 큰 본당이나 공소가 있는 신자들 처럼 즐겁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교우님들의 정성만을 기다리며 여러 본당 교우들께 따뜻하신 주님의 사랑 머물기를 두손모아 빌겠습니다

(와룡공소 회장)

## 요심이 (233) 김병오



☆ 교우님들의 협조를... ☆

## 문 의 상 실

문 정 실(세시리아)

☎ 군산 6224

군산시 죽성동 영동 파출소 옆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결 (축) 혼

변 재명 씨 장남 효석(루스)

박 윤옥 씨 차녀 유덕

일시: 1978년 1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정읍 천주교회

주례: 서 용 복 (토마)신부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울 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동

(전화 ☎ 4577, 5789)

□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료, 스킨

## 문 화 양 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2-3170, 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 찾아 주세요 □

## 이 신경 외과 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매구점)

전화 ☎-9793

원장 이 종 두(헨리프)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  
지  
사  
항

-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는 일치주간 입니다.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 1. 성심·해성 교직원 연수회(16일<월>)오전 10시-오후 5시, 가톨릭 센터)
- 2. 성령 세미나(17<화>-21<토>), 가톨릭 센터)
- 3. 78년 1월 정의 평화 기원 미사(23일<월>) 오후 7시반, 전동 성당)
- 4. 본당 및 공소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위한 연수회(23<월>-27<금>), 가톨릭 센터)
- 4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임원 개선  
회장...서제성(덕진), 부회장...김성운(서학동), 정성혜(중앙)  
총무부장...이범수(덕진), 차장 송민숙(중앙), 교육부장...양경배(전동), 차장 김진숙(서학동),  
편집부장...김희경(중앙), 서남숙(전동)
- 5.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16일<월>) 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  
문정현 신부 출감을 기념하는 이 기도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중·고등학생 공동체 목상회 93명(6~8일) 주님의 은총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서 동 목  
보좌 신부 김 진 석  
사도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이 복 석

- 1. 성도회 월례회 : 15일 공식 미사후, 장당
- 2. 애령회 임시총회 : 16일<월> 밤 8시, 사제관
- 3. 78년도 교무금 수입 및 남부 바랍니다
- 4. 교적부에 사진 부탁드립니다
- 5. 사도회 총무-양학도, 부총무-함문권  
구역장 임명-서노송동 2구(함문권), 태평 1가(김은남), 반장임명-서노송동 1구(김순영), 태평 1가(1김순자)
- 지난주 봉헌금 : 128,277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박 종 용

- 1. 사도회 확대회의 : 오늘 공식 미사후 사도회 회장단, 교문, 각 분과장, 공소회장, 구역장 각 반장 참석바람
- 2. 성우회 월례회 : 오늘 밤 8시, 전원참석 바람
- 3. 신용조합 월례회 : 18일 밤 8시
- 4. 중고생 지도에 박미카엘(명운), 수고 하시겠습니다
- 5. L.M주간 주부팀 조직중! 관심있는 분은 18일<수> 오후 3시에 본당 회의실로 나오세요
- 6. 재속 청년회 피정 : 22일 오전 6시반-오후 8시 대상-남녀 청장년, 참가비 1천원, 사무실에서 접수
- 7. 청장년 피정 : 29일 오전 6시-오후 7시, 명상의 집 미사도구와 회비 1천원 지참하여 28일까지 신청바람
- 8. 학생회 고아원 방문 : 15일 오후 1시반 출발
- 지난주 봉헌금 : 58,945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 1. 78년도 봉헌금 본당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 2. 졸업생 위한 미사 : <토>오후 7시반, 재학생 참석바람
- 3. 외인 인도 서약서를 아기에수께 봉헌합니다
- 4. 판공성사 못보신 분 미사전에 보세요
- 5. 제대꽃 및 초의 많은 봉헌 바랍니다
- 6. 27일은 구라주일, 특별헌금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8,715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 1. 사목교서에 의거 \*10·1조를 봉투에 넣어 감사의 제물로 봉헌 바랍니다
- 2. L.M연총 친목회 : 17일 밤 7시반, 단원 협조단원
- 3. 주일학교 동계 특별교리 : 16-21일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 일일교장 : 16일-오혜레나, 17일-장봉주, 18일-박홍기, 19일-김성원, 20일-박상기, 21일-이호재
- 4. 특별 봉헌 감사합니다  
이 다시안나 성탄때부터 계속 제대 꽃 봉헌해 주심.
- 5. 성탄 난로 톱밥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75,020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 형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 1. 부녀주일, 10시 미사후
- 2. 성령 세미나 관계로 17-21일 미사없음
- 3. 본당 교리교사 모집 : 뜻있는 분의 봉사 바랍니다
- 4. 김진호(스테파노)선생님 군에 입대, 어린이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 5. 영세자 사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 6. 중고생 교리 : 16-28일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 46,220원

(숲정리)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 1. 요한회 창립총회 : 오늘 공식 미사후, 남녀 교형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 2. 애령회에 서신동 이종원상가 5천원 회사, 감사합니다
- 3. 성경 연구 교실에 중고생 빠짐없이 나오세요  
부산 메리놀 병원장 수녀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 4. 외인 인도 서약서 36통,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22,170원, 구유 헌금 9,655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 환 중  
보좌 신부 이 유 석  
사도 회장 유 유 석

- 1. 교미시울 월례회 : 오후 2시, 가톨릭 센터에서
- 2. 예비자 교리 : 중고생-9시 미사후, 일반 남녀-10시 미사후, 젊은 남녀-<수> 저녁 7시반, 직장남녀-<금> 저녁 7시반 ※선교활동에 모든 교우님들 참여바람
- 3. 예수님 평화상 건립완료
- 4. 파타마 성당 십자총말 완성
- 지난주 봉헌금 : 172,070원

초 빙

인간다운 생활 또는 자선을 하려면 어느정도의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생각이신 분을 초대합니다. 3년동안 실현해 보고, 직접 시설해 본 결과, 그 제품의 가치를 저 자신이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자신을 자기교서,저와 함께 보조를 맞추실 분들을 정식으로 초빙합니다. 본당단위(면 소재지의 공소포함)로 사업확장코저 하오니 신용과 의욕은 있지만, 자본이 없으신 분도 서슴치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각 단위별 신착순).

한국 온수온돌 (연탄보일러) 공업사, 호남지사

지사장 한 동 암(보세)

연락처 : 이리시 인화동 2가 65, 열관리 연구소

전화 이리 8629, 군산 3032.